

2022

문화 Festival

드리미학교 4기 문혜령
신앙과 배움, 삶과 공동체를 빛다.

Dreamy School



COME FORTH AS GOLD

DREAMY • 2022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욥23:10)

빛음을 마치며

빛음은 나에게 허락하신 정말 소중한고도 뜻깊은 시간이다.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며 매일 쫓기듯 달렸던 나에게 주위를 살피며 걷는 방법을 알려주셨다. 세상에서 배우지 못했던, 배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소중한 것들을 배우며 그것들로 나의 마음을 채워주셨다.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내가 이렇게 변화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심에 감사한 반 년이다. 드리미학교에서의 공식적인 빛음은 오늘로 마치지만 나의 평생을 빛으시고 단련하실 나의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을 기대한다.

목 차

- COME FORTH AS GOLD
- 사명선언문
- 빛음1단계
- 빛음2단계
- 가치기초소양
- 3P기초소양
- 성결서약문



ABOUT ME

가진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일
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는 사람.
하지만 하늘의 소망이 있는
사람. 그 소망을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매일 넘어지지만
다시 일으키실 분과 함께인
사람. 매일 무너지지만 다시
쌍아올리실 분과 함께인 사람.

문혜령, 文慧領

지혜로 사람을 이끌고 다스린
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사람.
이 소중한 이름이 헛되지 않게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은 사람.
성경으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날마다 받길 소망하는 사람.
그 지혜를 간직하며 하나님께로
사람을 이끌고 아픈 사람의
마음을 다스려 하나님의 나라
를 완성해가길 원하는 사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
시키러 왔노라(눅3:31-32)

|

손가락질 받는 마태와 함께
먹고 마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길 원하는 사람. 단지
마태 곁에 함께하시며 손가락
질 받으시던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길 원하는 사람. 죄인을
끝까지 포기치 않으시는 예수
님의 사랑에 감사한 사람.

사명선언문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는 교육자
동등한 배움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에게 배움의 다리가 되어주며 진리만을 전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교육자가 된다. 교육으로 씨를 뿌려 그들이 열매 맺길 소망하고 기도하며 축복하는 매일을 살아간다.



사랑으로 안아주는 어머니와 아내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의 자녀와 남편을 사랑한다. 자녀를 위하여 늘 기도하고 간구하며 신앙적으로 성숙한 엄마가 된다.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만을 기뻐하는 주님만이 중심 되시는 사랑의 부부 관계를 이어간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사랑하는 삶을 산다.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교하는 삶을 살며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가 되는 삶을 산다.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자녀
나를 통해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삶을 살며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산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헌신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과 방식이 되도록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하는 상담자
마음이 힘든 사람에게, 기댈 곳이 없는 사람에게 쉬어갈 수 있는 기둥이 되어준다.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하며 마음의 짐을 함께 감당해 주고 아프고 다친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료하고 안아주는 삶을 산다.

ACTION PLAN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는 교육자

- 한 달에 한 번 교육에 관련한 논문이나 도서, 강의나 탐방 등을 통하여 교육을 공부하고 학습한 내용과 소감을 글로 정리하여 보관한다.
- 계절이 바뀔 때 마다 유치원, 특수학교, 양로원, 고아원 등 교육이 필요한 현장에 직접 나가 경험을 쌓고 함께 배우며 사랑을 전한다.
- 교육자로서의 사명에 관하여 계속 고민하고 생각해 보며 한 달에 한 번씩 나의 생각을 정리한 글을 써 보관한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

- 계절이 바뀔 때마다 선교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가서 그들과 사랑으로 소통한다.
- 선교를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나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구한다.
- 내가 현재 가진 상처가 타인의 상처로 변하지 않도록 내 마음의 결핍과 상처를 치유하고 해소하는 삶을 산다.
- 항상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며 만나는 사람에게 언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연습하고 준비한다.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자녀

- 주님께 늘 기도하며 예수님의 마음과 심장을 구한다.
- 나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선한 삶을 살아간다.
- 나서서 먼저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며 품어준다.
- 내게 주신 달란트를 선한 곳에 사용하실 줄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다.
-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찬양한다.
- 나의 마음과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을 의지하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한 삶을 살아간다.

사랑으로 안아주는 엄마이자 아내

- 자녀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나의 언어 습관과 신앙을 돌아보며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간다.
- 드리미학교 공동체에서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며 내가 받은 사랑을 자녀와 남편에게 줄 수 있도록 한다.
-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기다리고 나의 감정과 사랑의 선택을 주님께 맡기고 신뢰한다.
- 매일 3장씩 말씀을 읽으며 신앙적인 지식을 키우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하는 상담자

- 마음이 아픈 드리미학교 친구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함께 슬퍼한다.
- 말동무가 필요한 양로원이나 노인정 어르신들께 찾아가 사랑으로 대화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
- 한 달에 한 번 심리학에 관한 도서나 논문, 강의나 탐방을 통하여 심리학을 공부하고 글로 정리한다.
- 나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며 정체성에 대하여 고민하고 생각하는 삶을 산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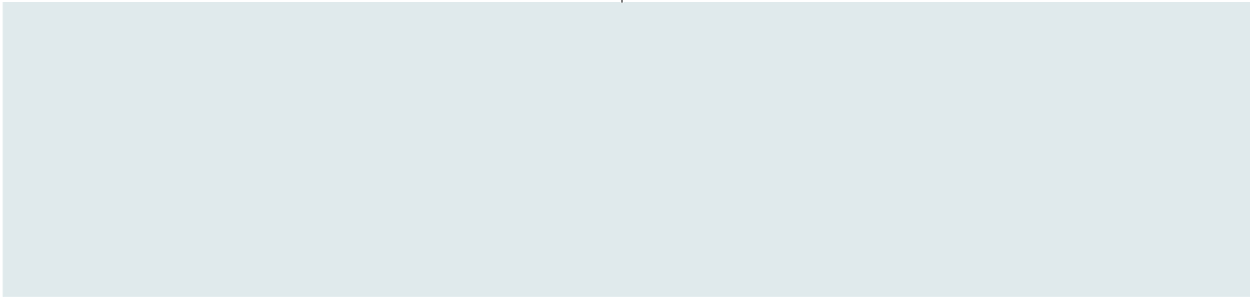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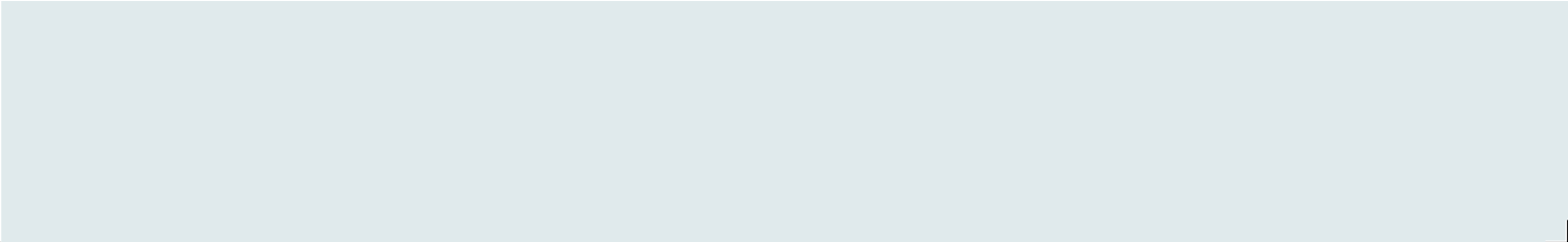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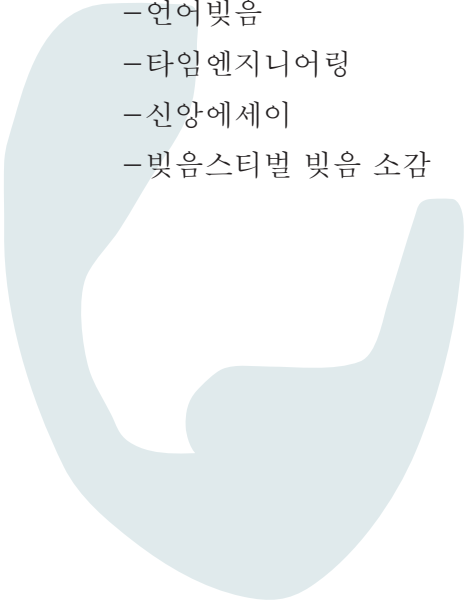
(시 16:11)

”



빛음 1단계



- 
- 
- 
- 언어빛음
 - 타임엔지니어링
 - 신앙에세이
 - 빛음스티별 빛음 소감

언어빛음

<우리나라 언어의 특징>

1. 청자 중심의 언어

- 나보다 너를 위한 언어를 사용한다.

2. 높임법이 가장 발달한 언어

- 상대를 존중하고 나를 낮추는 언어를 사용한다.

3. 서술어가 가장 나중에 나오는 언어

- 경청해야 하며 오해하는 일을 삼가야 한다.

4. 감각적이고 섬세한 언어

- 단순화된 표현보다 다양한 표현으로 나의 입술을 가꿔야 한다.

<성경적인 언어>

죄 이전의 언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창2:22)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창3:18)

죄 이후의 언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창3:12)

언어 사용에 관한 성경 구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엡4:29)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시141:3)

<언어빛음의 이유>

좋은 언어습관을 사용하는 것은

1.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며

2. 타인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3.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이다.

<언어빛음 소감>

언어빛음은 나에게 정말 귀하고 귀한 시간이었다. 언어빛음은 단순히 나의 언어습관을 좋게 만드는 것을 초월하여서 삶을 바라보는 나의 눈을 돌려준 소중한 시간이다. 언어빛음을 하며 새롭게 깨닫고 느낀 점이 정말 많다. 언어는 주변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는다는 것을 느꼈다. 드리미 학교에 오기 전,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는 일상적인 욕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하며 지내왔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기에 내가 하는 언어습관이 남에게 상처가 되고 나에게 상처가 되는 습관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친구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욕과 비속어는 꼭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드리미학교에서 언어를 빚으며 과거 나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반성하게 되었다. 내가 아무렇지 않게 쓰던 비속어의 의미를 공부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언어를 보았을 때 나의 언어습관을 그대로 가지고서 살아가고 싶지 않았다. 드리미학교에 오기 전에 이것을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내가 과연 언어습관을 고칠 수 있었을까 하는 고민을 했다. 욕과 비속어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내가 과연 흔들리지 않고 홀로 나의 언어습관을 선하게 바꿀 수 있었을까? 아마 힘들었을 것 같다. 돌아와 생각해 보니 드리미학교 공동체의 예쁜 언어습관을 나도 모르게 닮아가고 있었다. 언어빛음 초반에는 습관적으로 나오는 비속어를 줄여가기가 너무 어려웠다.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나쁜 말들을 절제하고 바뀌나가는 것이 정말 힘들었다. 지금도 나쁜 언어습관이 완벽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점점 줄어가고 예쁜 언어습관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느껴져서 매일이 뿌듯하고 감사한 요즘이다. 앞으로도 계속 나의 언어습관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시도록 변화시키고 싶다. 나의 언어로 인하여 듣는 이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 이번 언어빛음 기간이 일시적인 언어빛음이 아니라 평생 언어빛음의 발판이었길 간절히 소원한다. 나의 언어습관을 보며 많은 사람이 언어습관을 점검하고 예쁜 말을 하려 노력하도록 변화를 이끄는 삶을 살길 소망한다.

타임엔지니어링

<시간의 개념>

시간이란 실제로 없으며 현재라는 것 또한 없다. 우리가 인지하는 시간이란 사건의 순서를 시간으로 인지하는 것이다. 우리는 늘 사건을 선택해야 하며 그 선택이 모여 나를 만든다. 우리가 하는 선택의 기준은 늘 하나님이어야 한다. 즉 우리가 하는 선택의 기준은 성경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시간은 늘 현재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살아야 하며 영원의 시간 안에서 살아야 한다.

<차원의 개념>

0차원: 점) 나 밖에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미 다른 사람과의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0차원을 벗어난 사람들이다.

1차원: 선) 나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 특별한 사람과의 관계만 생각하는 사람이다. 주변을 살필 줄 모르며 나의 감정이나 내가 좋아하는 것만 중요한 사람이다.

2차원: 면) 특정 관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또래 여러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나가고 주변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다. 사람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다.

3차원: 입체) 어른이나 선후배 등 나와 수평적인 사람과만 관계를 맺지 않고 세대를 초월해서 여러단계의 사람들도 배려하며 사고하는 사람이다.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다.

4차원: 공간+시간) 시간을 초월한 사고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미래를 생각하며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최고치의 삶을 살아간다.

5차원) 영원한 세계를 의미한다. 즉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한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갈 수 없는 곳이다. 영원을 인식하며 사는 사람이 5차원의 사람이다.

<시간의 압축성>

시간의 압축성이란 사건을 압축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어떠한 사건을 일으킬 때 그 사건을 압축하면 폭발력이 나올 수 있다. 우리의 인생에 힘이 생기려면 사건을 시간을 압축해야 한다. 시간은 사

건으로 구성 되어 있기 때문에 사건을 압축해야 한다.

사건의 압축 방법

1. 앞으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고민하고 가정한다.
 2. 이벤트를 나열하고 타임테이블 안에 넣는다. 나의 비전은 내가 구체화 시켜야 한다.
 3. 압축해서 실행한다.
- 즉, 미리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을 나열하고 압축하는 것이다.

<시간의 초월성>

시간은 초월할 수 있으며 영적인 부분이다. 시간의 초월성이란 시간을 초월하여 미래를 그리고 상상하며, 미래의 어떠한 사건을 기획하고 현재로 끌어오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려야 한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미래의 나의 모습을 가져와서 현재의 나에게 적용해야 한다. 미래의 모습을 끌어오게 되면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내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내가 살아가야 하는 삶과 현재 나의 삶의 차이를 채우고 메워 나가야 한다.

<시간의 복제성>

나와 같은 목표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복제되는 것이 시간의 복제성의 원리이다. 시간의 복제성을 잘 활용하려면 원본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시간의 복제성의 원리를 깨닫는다면 큰 비전을 가지는 것이 가능하다. 시간의 복제성의 원리가 없다면 혼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만 하게 된다. 하지만 나 한 명에서 여러 명을 복제시켜 간다면 큰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복제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있게 된다. 시간의 복제성을 가장 잘 활용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서는 12명의 제자들 데리고 다니셨고, 그 12명의 제자가 또 제자를 만들고, 만들고, 만든 것 처럼 우리도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시간의 융복합성>

시간의 융복합성은 여러가지의 일이 주어져도 하나만 선택하지 않고, 모든 일을 다 열심히 챙겨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는 편하고 단순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우리는 매우 복잡한 일을 해야 한다. 우리가 설 수 있는 곳은 하나님 나라이다. 그 나라에 들어

가기 전 까지 우리는 쉬지 않아야 한다.

<시간의 계시성>

하늘에는 빛이 있다. 하지만 그 빛은 커튼으로 가려져있다. 그 커튼은 우리의 죄악이다. 바로 그 커튼을 여는 것이 시간의 계시성이다.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나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죄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그것을 벗겨내었을 때 신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소감>

타임엔지니어링 수업을 하며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 수업을 시작한 초반에는 이해가 어려운 내용이 많아 힘들었지만 배우면 배울 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생각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미래 나의 꿈과 비전에 시간의 속성을 대입시켜 더욱 자세히 구체화 시키고 내가 지금 해야할 일을 찾아갈 수 있었다. 또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차원과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차원에 대하여 생각하며 나의 정체성과 관계를 떠올릴 수 있었다. 단편적인 지식을 전달받는 수업이 아닌 시간에 대하여 계속 생각하고 나의 삶과 연관짓는 수업이라서 듣는 동안 내적으로 정말 많은 성장이 있었다.

현재 나는 모든 차원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원래 나는 0차원적인 사람이지만 계속 그것들을 조절하고 생각하면서 나의 차원을 5차원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것 같다. 내가 순간 조절하지 못한다면 2차원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깊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5차원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표현 보다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것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4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는 5차원의 사람이지만 낮은 곳으로 가서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5차원으로 끌고 올 수 있는 사람이다. 가장 먼저 나를 돌아보아야겠다. 나의 부족한 부분들, 나의 결점을 계속해서 찾아보고 생각해보며 이제껏 내가 생각하고 바라보았던 관점이 아닌 다른 시선과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연습을 해야겠다. 나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나의 사랑이 더 낮은 곳으로 흐르길 원한다.

“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계 1:8)

”

신앙에세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23:4)

요즘 내가 간절히 붙들고 있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붙들기까지 두 달 남짓한 학교생활을 하며 나 스스로 크고 작은 신앙적인 고민과 성장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스스로 들어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그 과정이 나에게서는 너무 아프고 버거울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길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하시는 길임을 믿는다.

가장 큰 성장은 나의 신앙이 흔들린 것이다. 최근 언제부터인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침묵하셨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으며 애원해도 항상 침묵하셨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지 못했고 나의 신앙을 포기했다. 침묵하심이 두려운 나머지 기도 하고 싶은 마음을,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을 애써 무시했다. 하지만 드리미 학교에서 관계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항상 나를 붙드시고 포기치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았던 나의 모습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나의 내면을 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주셨다.

내가 구하고 소망해야 할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만져주실 하나님이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이어오며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은 나의 감정을 만지시는 하나님이셨다. 상처 가득한 나의 마음을, 뚫려 있는 구멍에 들어오는 시리고 날카로운 바람을 하나님께서 만지셨다. 이제 주님께서 나의 감정 안에서만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감정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나와 더 깊게 교제하시길 원하신다. 감정적으로 요동치는 불안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굳건한 신앙생활을 이어가길 원하신다. 나의 감정으로 하나님께 위로만을 구하는 기도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기도를 원하신다. 감사하게도 그런 하나님께서 새로운 장소로 나를 초대하셨다.

나에게 침묵하시는 동안 주님은 나보다 더 슬퍼하시고 나보다 더 마음

아프셨을 것이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셨을 것이다. 주님 앞에서 울고 있는 나를 그 누구보다 안아주고 싶으셨을 것이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더 큰 사랑의 힘으로 인내하시고 침묵하셨다. 내가 깨질 수 있길 바라시며, 나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장하여 지금까지의 교제보다 더 깊은 교제를 함께 하길 소망하시며 말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단련하시는 동안 넘어질 수 있는 약한 사람이다. 하지만 그런 나를 다시 세우시고 일으키실 분이 내 안에 계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박히심으로 나의 죄가 사하여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 분을 위하여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길 원한다. 말씀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 진짜 믿음이란 기적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없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것이 기적보다 더 기적 같은 믿음이라는 것을 배웠다. 끝까지 포기치 않으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많이 무너지고 넘어졌던 이 시간이 정말 귀하고 소중하다.

가장 큰 신앙적인 고민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이후 베드로는 어부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베드로에게 오셨고 멀리 떨어져 고기 잡는 베드로를 지켜보셨다. 예수님을 본 베드로는 물이 뚝뚝 떨어지는 채로 예수님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갔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셨다.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신다고 고백하였다.

그 더러운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기 두렵고 무섭지만, 예수님 앞으로 갈 자격이 없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지만 그래도 예수님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니까 한 번이라도 더 나아가고 싶었던 베드로의 마음. 그 마음이 마치 나의 마음과 같아서 베드로의 애절한 마음을 묵상했다. 더러운 모습으로 다시 예수님 앞에 서서 그 어떤 말도 먼저 할 용기가 없는 베드로를 보며 나를 떠올렸다.

만약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확신했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면 나는 다시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일까. 나

는 이미 수도 없이 예수님을 부인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에도 끝까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의 의를 믿었고, 나의 사랑을 믿었고, 나를 믿었다. 그렇게 수도 없이 깨져왔던 시간들이 있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셨을 것이다. 나의 의를 포기하지 못해서 울다 지쳐 잠들곤 했던 그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행복하셨을 것이다. 매일 하나님과 조금씩 가까워지는 나의 모습을 보시며 말이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 누구보다도 안고 싶으셨을 것이다. 다시 어부 일을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나 여기 있다고 말씀하고 싶으셨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멀리서 지켜보셨다. 베드로가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기다리셨던 것 처럼 오랜 시간 나를 기다리셨다. 너무나도 더럽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부끄러운 나지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수도 없이 세상의 것들에 무너지는 나의 모습마저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채우셨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던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채우셨다.

예수님께서 죄 투성이인 나를 구원하셨다. 세상에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도 많지만, 나보다 더 현명한 사람도 많지만 예수님은 부족한 나를 사랑하셔서 선을 이루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는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나는 그 보혈을 의지하며 매일을 살아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53:4-6)

“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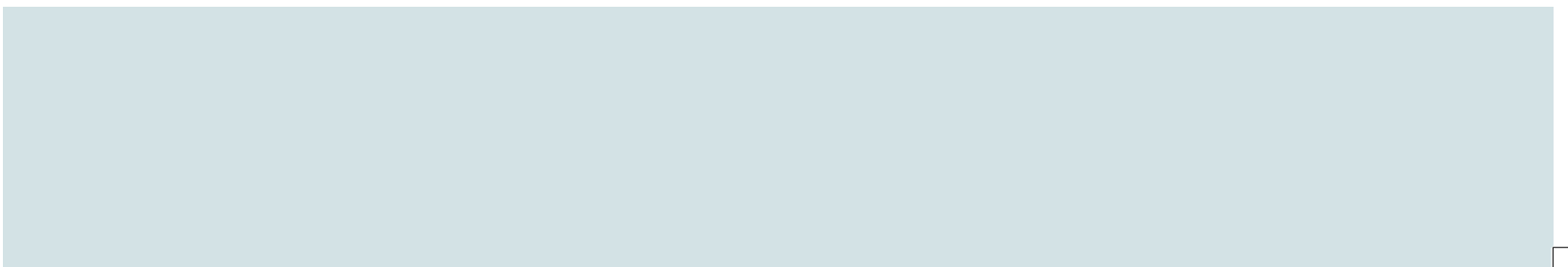
(시 42:11)

”

빛음페스티벌 빛음 소감

안녕하세요. 저는 드리미학교 4기 문혜령입니다. 2달의 빛음 기간은 저에게 선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빛음을 하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배움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저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빛어지지 않았고 완벽하게 변화될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매일 무너지고 매일 넘어지지만, 그래서 늘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똑같은 매일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매일 하나님 앞에서 깨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수 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 빛음이라는 과정을 거치며 가장 감사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계속 감추고 싶고 포장하고 싶었던, 남들에게 보이기 두렵고 무서운 모습이 공동체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저의 상처와 저의 이기적인 마음이 계속해서 행동으로, 언어로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나오는 행동들이 과거의 저를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일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다시 일으키셨고 매일 무너졌지만 늘 다시 쌓아올리셨습니다. 지금까지 애써 무시해왔고 부인해왔던 저의 솔직한 내면을 보게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부족한 입술로 저를 고백할 때. 그제서야 예수님을 부인했던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의 의를 내려놓고 저의 솔직한 민낯을 공동체에게 보였을 때 그제서야 저의 빛음은 시작되었습니다. 빛음은 빛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빛어질 준비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나의 모습을 꺼내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을 때 그제서야 빛음은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며 빛음을 도와주신 선생님, 그리고 부족한 저의 모습을 이해하고 받아주었던 언니오빠, 또 혼자 달리지 않고 같이 걸어주었던. 함께 빛어진 4기 친구들이 있었기에 의미있는 빛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23장10절 말씀) 저는 빛음 기간을 거치며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빛음은 하나님께서 저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이 연약한 저에게는 너무 힘들었지만, 그리고 지금도 너무 힘들지만 연약한 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고 굳건히 빛어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저의 삶이 제가 보기에 순금 같은 삶이 아닌, 오로지 주님께서 보시기에 순금 같은 삶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빛음을 통해서 저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은 저를 끝까지 붙드시고 주님 보시기에 순금 처럼 빛어가실 하나님이십니다. 드리미학교에서의 모든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귀했고 너무나도 과분했습니다. 드리미학교에서의 공식적인 빛음은 오늘로 마치지만 나의 평생을 빛으시고 단련하실 나의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 13:35)

”



빛음 2단계

- 톨스토이의 인생론
- 칭찬사전
- 신앙에세이
- 빛음 2단계를 돌아보며
- 미리 쓰는 나는 배웠다

톨스토이의 인생론

<톨스토이의 인생론 요약>

인간이라는 존재는 개인의 행복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그 행복은 타인에 의해 좌우된다.

인간은 인간 자체로 행복에 도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과연 존재하는 것인가?

행복하고 싶거든 행복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행복은 추구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성장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행복은 저절로 굴러간다.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사랑이다.

인생이란 신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1차원적인 생각을 벗어난다면 그것을 초월한 더 큰 행복이 주어진다.

즉 행복은 내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다.

<소감>

톨스토이가 이야기하는 그 행복이 정말이라면,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생각했던 행복은 무엇일 지 의문이 들었다. 내가 지금까지 행복이라고 느꼈던 감정들은 다 무엇이었을까? 정말 행복이 맞을까? 만약 그 감정이 행복이 아니라면 그 감정은 뭐지? 정말 행복은 뭐지? 사실 이 글을 읽어도 행복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다. 이 짧은 글 하나로 어떻게 행복을 알겠냐만은 다른 책도 찾아보고 오래 생각해보기도 했다. 그럼에도 나는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나는 톨스토이가 이야기하는 행복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내가 느꼈을 땐 그게 최선의 행복이었는데 그것보다 더 행복한 행복이 있을까? 그렇다면 행복에도 단계가 있지 않을까. 어쩌면 내가 지금까지 느끼고 생각해왔던 건 행복이 아닌 나의 즐거움과 나의 쾌락이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타인이 나의 행복을 위한 도구라면, 정말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사랑이라고 칭하고 행복이라고 칭했던 모든 것이 행복이 아

닐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행복이라는 단어만이 그 때의 나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감정은 대체 무엇이였을까.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정말 나의 행복의 수단에 불과했을까. 내 안에는 사랑이 없는데 그 때 나는 어떻게 행복이든 행복 비슷한 감정이든 느낄 수 있었지?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행복이었다. 어쩌면 내 안에 나조차 몰랐던 사랑이 있었을까? 자아도 모르겠고 행복도 모르겠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지 모르겠다. 성장의 욕구를 개발해서 자아실현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며 행복을 느끼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하나도 와닿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뭐고 행복은 뭐고 삶은 또 뭘까 너무 어렵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 행복이 따라오는 게 맞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서 억울하고 힘들고 지치는 감정들도 행복일까 아니면 그 감정은 행복이란 다른 부분일까? 그래서 행복은 뭘까? 사람들은 왜 진리가 아닌 쾌락적인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지 고민하게 된다. 단지 세상에서 돈 많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놀고싶을 때 노는 것, 왜 그들의 행복은 거기까지인까? 행복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세상적인 행복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행복으로 나뉘는 걸까? 물론 예수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평안은 세상의 행복과 비교도 되지 않겠지만 세상의 행복에도 단계가 있을 것 같다. 그 많은 행복에 관한 책 중에 어느 한 책에는 행복의 단계도 정의하지 않았을까? 방금 찾아봤는데 있다. 행복에도 단계가 있구나 그래도 그 단계를 초월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예수님 뿐이겠지?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평생 그 정도의 행복만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건가? 그 이상의 행복을 모르고 당장 느끼는 감정이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닐까? 그 사람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 아닐까? 바보는 행복하다는 말이 맞을까? 만약 오늘 내가 행복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면 나는 나만의 세계에서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감정을 누리며 행복하지 않았을까? 왜 나는 세상적인 바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바보가 되는 길을 선택했을까? 내가 선택한 게 아닌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건가? 저영말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사는 게 뭘데ㅠㅠ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 지 정말 하나도 모르겠으니 내가 들었던 의문의 답을 하나하나 천천히 고민하고 경험하며 찾아가는 삶을 살아야겠다. 위에 있는 물음표 부터 해결한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지에 대한 생각도 조금씩 정리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다.

칭찬사전

<칭찬사전>

칭찬: 진지할 땐 진지하고 재밌을 땐 재미있는 친구 완급조절 (이 용어가 맞나?) 이 좋다.

추억: 초반에 명량하고 밝은 모습을 보여주어서 분위기 메이커 역할만 할 줄 알았는데, 이음예배와 다른 수업, 활동, 자리에서 하는 말들을 들으면 그냥 놀랍다. 가끔씩 이 사람이 나와 같은 나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내용이 굉장히 훌륭함.

칭찬: 항상 밝은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추억: 분위기가 낮을 때도 분위기를 잘 올려준다.

칭찬: 말을 깔끔하게 합니다요.

추억: 당연하고 확고한 것에는 가끔 무지성이긴 하지만 말을 진짜 탐나게 잘 한다이요.

칭찬: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추억: 무슨 말을 해도 잘 수용해줘서 고마워

칭찬: 자기의 생각을 조리있게 표현할 줄 안다.

추억: 너는 참 네 생각을 잘 표현하고 잘 설명해 나에겐 없는 은사이기
에 더 대단하고 멋져 우리 혜령이 장하다

칭찬: 하나님 앞에서 진심이다

추억: 찬양을 드릴 때도, 기도드릴때도, 예배때도 한결같이 앞에 앉아 집중하는 모습이 멋있다. 누군가에 의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닌, 혼자 있을 때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모습이 보는 내게 감동으로 다가온다.

칭찬: 찬양할 때 진심이다. 밝은 에너지가 넘친다.

추억: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은혜로워. 너는 보면서도 정말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것 같아.

칭찬: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훌륭히 완수해 낸다. 문장력이 탁월하다. 함께 있으면 위로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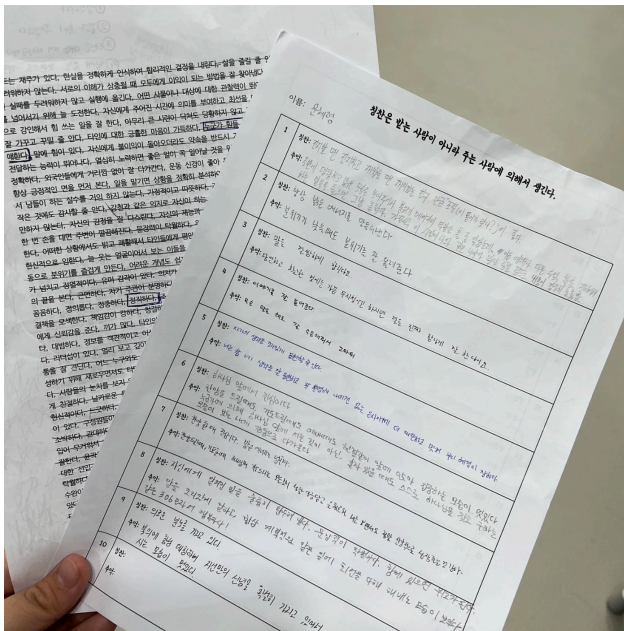
추억: 말을 조리있게 잘 하고, 항상 계획적으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해내는 모습이 보인다. 같은 306호라서 행복하다!

칭찬: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있다

추억: 불의에 항상 대항하여 자신만의 신념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서 그 신념에 따라 하루를 사는 모습이 멋있다.

‘칭찬은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에 의해서 생긴다’

이 수업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메세지이다. 친구들에게 칭찬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며 한 가지 느꼈던 사실이 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누구나 칭찬 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느꼈다. 칭찬을 못 받는다는 것의 의미가 절대 그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님을 다시 한 번 생각했다. 나 또한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임과 동시에 누군가에게 기분 좋은 칭찬을 할 수 있는 입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한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말이, 친구들을 기분 좋게 하는 칭찬이 내 입을 통해 흘러나가길 소원한다.



신앙에세이

내가 이전까지 만났고 바라왔던 하나님은 나의 감정만을 만지시는 하나님이었다. 나는 찬양할 때 꼭 감동이 있어야 하고, 꼭 눈물로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읽고 꼭 무엇을 느껴야 하는. 그렇게 나의 감정을 충족시키는 하나님만을 원했다. 그리고 나는 나의 그 감정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좋아했다. 그렇게 3년을 보내왔다. 당연히 나의 믿음은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 변하는 나의 감정에 따라 매일같이 흔들렸다. 흔들리지 않는 날이 없었고 위태롭지 않은 날이 없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했지만 내 안에 웬지 모를 불안한 마음을 안은 채 매일을 살아갔다. 그렇게 나의 감정을 믿고 감정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이어기며 드리미학교에 들어왔다.

코로나 시즌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복음을 제대로 들을 기회가 없었다.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로 교회 설교를 들으니 당연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았다. 코로나 때문에 초신자를 위한 프로젝트로 다 멈춘 상태였기에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또한 대부분의 설교가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선포되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는 나로서는 설교가 크게 와닿지 않았던 경험이 많다. 드리미학교에 오고 나서 처음으로 복음을 들었다. 예수님 그 자체이신 복음을 들었다.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달 복음사경회를 통해 선포되는 복음을 들으며 지금도 정말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는 중이다. 복음을 알고난 이후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으니 더 정확히 이해가 되고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최근들어 주님께서 나를 떠나셨나 하는 불안함이 물밑듯 엄습했던 때가 있었다. 매일 감정적으로 만나주시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감정적인 통로를 끊으셨을 때가 있었다. 나는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했기에 내가 흘리는 눈물과 느껴지는 감정으로 주님을 부여잡았다. 하지만 더이상 눈물이 나오지도, 가슴이 벅차지도 않았다. 기도를 해도 아무 생각이 안 들고 찬양을 해도 감동이 느껴지지 않는, 그래서 너무 무섭고 답답했던 시기가 있었다. 주님을 붙잡으려고 나를 간절하게 주님을 찾았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찬양해도 주님께서는 더이상 예전처럼 나의 감정을 만져주시

지 않으셨다. 지금은 텅텅하게 글로 적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많이 힘들었다. 내가 알고있던 하나님은 감정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전부였기에 나는 정말 그 하나님이 떠나신 줄 알았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전부인 줄 알았다. 주님을 구하고 만나는 방법을 몰랐다. 정말 진리이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몰랐다. 그랬기에 매일이 너무 불안하고 무서웠다.

하지만 지금은 그 과정이 주님께서 나를 더 깊이 만나시고 싶어서, 더 깊은 곳에서 교제하길 원하셔서 주신 선물임을 안다. 감정적인 교류가 줄었다고 해서 주님께서 나를 떠나셨다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그건 그냥 나의 감정이고 착각일 뿐임을 나는 안다.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포기치 않으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그게 팩트고 진리임을 나는 안다. 나는 그 과정을 통해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나의 감정을 거르고 생각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 내가 믿어야 할 분은, 분잡아야 할 분은 진리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배웠다. 성경에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제 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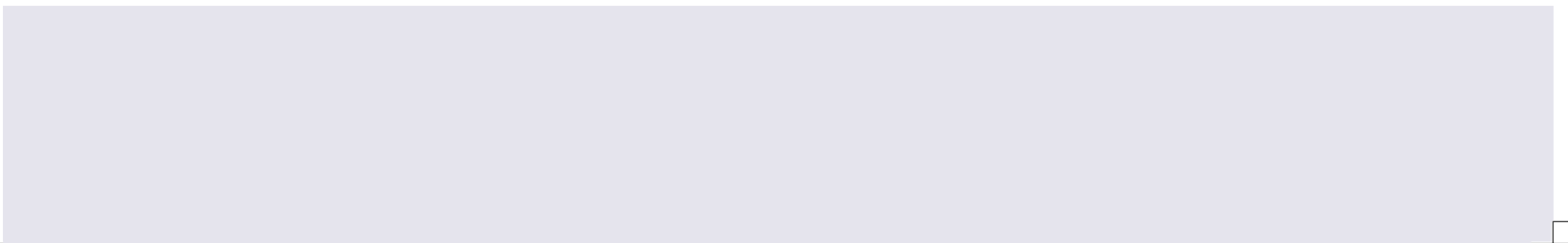
주님은 나의 감정따위에 따라 함부로 생각하고 판단해도 되는 분이 아님을 안다. 나의 감정이 동의될 때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찬양하고 그냥 기도해야 함을 배웠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내가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선임을 배웠다. 주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을, 언제나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그 진리를 믿는다. 나의 감정이 동의되지 않아도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진리다. 주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늘 함께 계신다는 것이 진리다.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복음임을 믿는다.

빛음 2단계를 돌아보며

한 학기 동안 배운 내용을 돌아보고 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글을 써보자.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해보아도 잘 모르겠다. 사실 알아도 알아도 알면 알 수록 답이 없는 사람이라는 건 맞는 것 같다. 사실 빛음 기간 동안 나라를 사람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이 없다. 그냥 예수님이 너무 궁금했고 예수님이 너무 알고 싶었다. 예수님을 알아가며 자연스럽게 나를 알아간 느낌이라고 해야하나? 나에 대해서는 별로 알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어쩌다 보니 성경에 써있는 나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알게되었다. 나라를 사람한테는 별 관심 없었는데 나를 계속 가꾸는 것도 주님께 드리는 예배더라. 나를 지키고 가꾸고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더라.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인,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모습과 나를 같이 보며 계속 나를 알아갔다. 나는 사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와는 거리가 많이 먼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 사람들과 나는 거리가 너무 멀다는 것을 느꼈다. 이건 최근에서야 깨달은 건데 그 이유를 알아냈다. 맞는 지 아닌 지는 모르지만 말이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기뻐했고, 그 안에 예수님을 모셨다. 그랬기에 그들이 선한 일을 행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 사람의 마음으로는 안 되고 사람의 행위로 절대 안 된다. 절대절대 안 된다. 하지만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은 주님께 영광이 되고 타인에게 위로가 되며 전도가 되기도 한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삶이 아닐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그냥 주님께 찬양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내가 행할 수 있는 유일한 선이다. 그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이다. 그 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 때 나는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 주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이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변치 않는 진리이

다. 내 안에서는 절대 선택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안다. 내가
행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임을 나는 안다. 선택이
없는 내가 주님 안에서 선택을 행할 수 있음을 안다.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되어야 함을 안다. 예수
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람, 예수님을 마음 깊이 간
직하는 사람이 내가 되어야 할 사람이 아닐까? 그러한 삶 자체가 나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전
부가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동안 배운 가치를 토대로 드리미학교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그리고 또 3년 간 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드리미학교를 졸업할 때 어떤 모습이고 싶은지를 생각해보고 글을 써보자.

그동안 가치기초소양에서 배웠던 5가지의 가치 (정의 절제 성결 정직 평화) 이 가치들을 배우면서 가장 큰 의문이 들었던 것이 있다. 이 5가지 가치를 다 알려줬으면서 왜 사랑이라는 가치는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나. 주님께서도 그 중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려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다. 혼자 아무리 고민해도 모르겠어서 사훈쌤께 여쭙본 적이 있다. 영민쌤이 이렇게 답변해주셨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동안 배운 5가지의 가치는 사랑을 기반으로 한다. 사랑이라는 핵심가치는 상위개념이다. 사랑이라는 가치를 지키는 사람에게 우리가 배운 가치가 의미있다고 말씀하셨다. 사랑이라는 가치를 지키는 삶을 살고 싶다. 3년 동안 가장 하고 싶은 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졸업할 때 내가 가장 원하는 것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학교의 핵심 가치들이 지켜지고 내면화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삶,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싶다. 어떤 행동을 해도 어떤 위치에 가도 사랑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학교에서는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안 알려줄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뭘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대체 뭘까? 다른 거 다 필요없고 그냥 나도 예수님 사랑하고 싶다. 근데 그 방법을 모르겠다. 방법이라는 게 있긴 할까?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뭐가 문제가 될까. 나는 아직 사랑이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도 없다. 나를 사랑하는 사랑도 없다. 타인을 사랑하는 사랑도 없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풍성해지고 싶다. 드리미학교의 성경적 가치를 이뤄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바라는 모습은 그거다. 난 그냥 그거면 된다. 나도 예수님 너무 사랑하고 싶다.

“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요 15:4)

”

미리 쓰는 나는 배웠다

나는 배웠다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나를 더욱 얹매고 옥죄고 있었음을

나는 배웠다

내 안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음을
내가 행할 수 있는 유일한 선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 뿐임을

나는 배웠다

사람을 바라보았을 때 남는 것은 상처와 아픔임을
그 안에 계신 분을 바라보는 것이 비로소 사랑임을

나는 배웠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 37: 4-5)

”

“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엡 4:22)

”

가치기초소양

- 정의에세이
- 절제에세이
- 성결에세이
- 정직에세이
- 평화에세이

정의에세이

<주님께서 하셨듯이>

나는 가치기초소양 수업에서 배운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 정의에 대한 성경적 이해, 희년, 정의롭지 않은 사회에 대한 글을 작성할 것이다. 이 글의 중점은 내가 배운 내용이 아닌 배움 활동을 통한 나의 생각과 깨달음이다. 대부분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으로 써내려간 글이다.

본격적인 에세이를 쓰기 전에 내가 생각하는 정의에 대해 언급하고 시작하겠다. 내가 생각하는 정의란 옳고 그른 것을 초월하여 연약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다. 이웃을 내 몸 처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남기신 발자취를 따라가고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의 결론은 사랑이다.

가장 먼저 배웠던 부분은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이다.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은 6단계로 나뉜다. 1단계인 타율적 도덕 단계는 받을 처벌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2단계인 개인주의 단계는 보상과 자신의 이득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3단계인 대인 간 기대 단계는 타인의 시선과 평판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4단계인 사회 시스템 도덕 단계는 법, 질서, 규칙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5단계인 개인의 권리 및 사회 계약 단계는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와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고 고려한다. 6단계인 보편적 윤리적 원칙 단계는 양심을 토대로 추상적인 원칙을 고려한다.

사실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을 보며 많은 생각을 했다. 아직까지 확실히 생각을 정리하지 못했지만 내가 참 감사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나의 도덕 기준은 어쩔 때는 1단계가 되기도, 어쩔 때는 6단계가 되기도 한다.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때 그 때 다른 도덕 기준을 가지고 살아왔다. 위에서 늘 보고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행동하고 판단하며 지내왔다.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론적인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이 시간은 나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상황이나 사람에 따라 도덕적 가치가 바뀌지 않는 삶을 살도록 지금보다 더 열심히 생각하고 더 열심히

히 행동해야겠다. 평소 하던 생각의 깊이를 넘어서서 고민해보고 생각에서 멈추는 삶이 아닌 행동과 입술로 옮기는 삶을 살 것이다. 나의 도덕적 판단 기준이 6단계에 머무를 수 있을 때 까지 나는 계속 노력할 것이다.

두 번째로 배웠던 부분은 정의에 대한 성경적 이해 파트이다. 이 파트의 핵심은 정의와 평화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정의와 평화의 입맞춤을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 많은 말씀을 보며 의와 평화에 대하여 공부하였지만 그 중 2개를 뽑아 작성하도록 하겠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시85:10)
이 구절을 통하여 지금까지 정리되지 않았던 나의 생각이 조금은 정리가 되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 즉 하나님의 성품을 뜻한다. 인애와 진리는 원인이고 정의와 평화는 결과이다. 즉 평화는 사랑의 결과이고 정의는 진리가 이루어진 것의 결과가 되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표면적으로만 이해하고 이론적으로만 이해했지만 언젠가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이 말씀을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을 때를 기대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요8:11)

이 말씀은 간음하다가 사람들에게 잡힌 한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 짧은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모두 녹아들었다. 우리는 여인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것이 주님의 인애이다. 또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사랑,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공의’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는 정의와 진리, 공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성경을 통하여, 공동체를 통하여 검증된 의를 추구해야만 한다.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성경의 의와 정의가 무엇인지 계속 생각하고 나의 생각이 아닌 더 높은 차원의 의를 생각하며 판단해야 한다.

내 안에는 사랑이 없다. 사랑하려 노력하지만, 이해하고 품어주려 노력하지만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매일 나의 한계를 느낀다. 내 안에는 정의가 없다.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조차 모른다. 나는 아무 것도 알 수 있는 게 없다. 나는 나의 기준에서 쉽게 판단하고 생각한다. 나는 매일 그렇게 무너지고 넘어진다.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께 사랑을 구해야겠다. 사랑이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겠다.

그러나 공의이신 하나님께 검증된 의를 구해야겠다. 공의의 근원이신 말씀
씀을 통해 성경의 의와 정의가 무엇인지 생각해야겠다.

세 번째로 배웠던 내용은 희년에 관한 내용이다. 희년이란 50년에 한 번
씩 돌아오는 해로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해이다. 희년
은 노예에게 자유를 주고 불우한 자들에게 자유를 주는 제도이다. 49년
동안 눌린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제도가 희년이라면 가난한 우리에게, 포
로된 우리에게, 눈 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전
파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처음 희년을 공부할 때는 너무 어려웠다. 우리가 사는 시대상과 맞지 않
고 나의 삶과 무슨 연관이 있는 지도 모르겠고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
도 모르겠고 정말 막막했다. 하지만 희년을 알아가다보니 하나님께서
희년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아주 가난해서, 도저히 자기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에게 우리
는 그들을 돌보아주고, 나그네나 임시 거주처처럼 나와 함께 살아야 한
다. 그들을 품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불우하고, 눈이 멀고, 포로 된
우리에게 주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자유를 주셨으니 철저히 낮아지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매일이 희년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싶
다. 나는 내가 삶을 살아가는 태도와 마음가짐에 희년과 예수님의 말씀
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기억하고 떠올리고 감사해야 한다.

네 번째로 배웠던 내용은 정의롭지 않은 사회에 관한 내용이다. 조를 짜
서 정의롭지 않은 사회에 대한 자료조사를 하고 발표하는 시간이었다. 나
는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 환경오염으로 인한 세계 각 지역의 피해,
교육격차에 대하여 조사하고 고민했다.

현재 우리의 사회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
고 있다. 비장애인만을 위한 사회, 젊은이들만을 위한 사회, 정의롭고 정
의롭지 못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사회에서 소외되어 우리와
다른 세상을 사는 그들에게는 빛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
을 계속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무심코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 습관적으로 하는 소비가 세계 각
국의 많은 사람에게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단순히 환경이 오염되는

것에서 끝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아이들, 여러 소외계층의 아이들은 지금도 매일 전염병과 영양실조로 죽어나간다. 우리나라 안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죽음의 이유이다. 우리의 편안함과 편리함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강한 생명의 위협이다. 우리는 하루빨리 정의롭지 못한 사회를 인식하여야 하며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문화를 부정하고 그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을 끊임없이 내미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는 중학교 생활을 하며 교육격차를 직접 피부로 느끼며 살아왔다. 부모의 소득차이가 자녀의 교육격차로 이어지기도 하고, 살아가는 지역의 차이가 교육격차로 이어지기도 한다. 우리는 모두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동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아서, 살고 있는 지역이 수도권과 떨어진 지역이라서 받는 교육의 질이 달라지고 그러한 교육의 질이 모이고 모여 평생의 삶이 결정되어지는것은 정의롭지 않은 사회의 모습이다.

정의롭지 않은 사회에 대하여 조사하고 발표하며 정말 많은 생각을 했다. 개념적이고 이론적인 공부라고만 생각되었던 정의가 우리 사회서도 많이 적용이 되는구나, 정의를 알아야 내가 약자를 도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정의 공부를 하기 전에 내가 바라본 세상과 정의 공부를 한 후에 내가 바라본 세상은 정말 달랐다. 그래서 정의에 대한 공부를 했구나, 내가 정의라는 부분에서 유식해야 더 똑똑하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겠구나 싶었다. 우리 사회에는 이것이 정의롭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 계속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정의롭지 않은 사회에 대한 수업을 하며 약자 편에서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들에게도 내가 들었던 수업을 나누고 싶었다. 그들이 당하는 일이 정의롭지 않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의 삶의 방향성과 태도는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공부한 정의를 많은 사람에게 나누는 삶을 살 것이다.

가치기초소양은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수업이 아니다.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고민하는 수업이다. 선생님으로부터 단편적인 지식을 전달받는 수업이 아니라 지식을 초월한 생각을 나누는 수업이다. 이러한 가치기초소양 수업을 통하여 미래 나의 꿈과 비전에 정의를 대입할 수 있었다. 나의 목표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로운 일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하는 일인지 말이다. 앞으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나의 방향을 단단히 잡을 수 있었다. 가치기초소양



은 내가 노력하고 생각하는 만큼 얻어갈 수 있는 수업이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불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데다(시146:7-9)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갇히고, 눈이 안 보이고, 비굴하고, 나그네인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주신다고 말씀해주셨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흘러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니 주께서 하셨듯이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받은 은혜를 전하며 살아갈 것이다. 연약한 내가 돌봄 받았으니 연약한 자를 사랑하는 삶, 공의로운 삶, 사랑하는 삶을 살 것이다.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공의로 많은 새들이 쉬어갈 수 있는 든든한 나무가 되는 삶을 살 것이다.

“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시 85:10-11)

”

절제에세이

“눈은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항상 명심하라. 그러므로 그대의 마음을 보이는 것들에 대한 사랑에서 벗어나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게 하라. 욕욕적인 본성에 굴복하는 자들은 양심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은총을 상실하게 된다.

-그리스도를 본받아(토마스 아퀴나스) 중에서-

<나의 삶에서 절제가 필요한 부분>

1. 나의 감정과 행동을 절제하는 것
2. 어떠한 일을 할 때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절제하는 것
3. 아침 준비 시간을 절제하는 것
4. 이타적이지 못한 언행과 행동을 절제하는 것
5. 샤워 하는 시간을 절제하는 것

<드리미학교에서 절제하고 균형잡힌 삶에 도움이 된 활동>

1. 아침운동과 다이어트를 통하여 나의 몸을 위한 절제를 하였다.
2. 더운 날 학교 잡초를 뽑으며 들어가고 싶은 마음을 절제하였다.
3. 등산과 걷기 연습을 통하여 공동체를 위한 절제를 하였다,
4. 새벽 늦게까지 과제를 하며 나의 역할에 대한 책임을 졌다.
5. 급식차를 경험하며 뒤에 올 사람을 위하여 음식의 양을 절제하였다.

<절제하는 삶을 위한 원칙>

1.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딤후1:7)

절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의지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5:22-23)

절제는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이다. 우리는 성령님께 늘 절제하는 힘을 구해야 하고 그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

3.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잠25:28)

나의 마음을 절제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나의 성읍을 지키고 성벽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나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4.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약1:19-20)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행동을 절제해야 한다.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절제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

5.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벧후1:5-7)

절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는 아름다운 절제 속에 선행을 더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절제의 사례>

무절제의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 나우루공화국은 인광석이라는 자원으로 인하여 정말 부유한 나라였지만 국민과 정부의 무절제로 인하여서 한정된 자원은 서서히 바닥났고 결국은 정말 가난한 나라가 되었다. 국가가 부유할 때는 국민 모두 일을 하지 않아 기본적인 생활 지식도 타국민이 알려주어야 할 정도였다. 인광석은 선물이었지만 인간의 무절제가 그 소중한 선물을 재앙으로 바꿔버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우루 공화국과 드리미학교의 공통점은 풍부한 자원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많은 자원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나우루공화국의 풍부한 자원은 축복이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우루공화국 국민들이 그 자원을 절제하지 않는 것이 그 자원을 비극으로 바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우루공화국의 자원이 너무나도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데에 이바지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일하지 않았고,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드리미학교 공동체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선물을 적당히 절제하며 살아가야 한다. 정말 과분한 이 자원들을 절제 안에서 우리의 목적에 맞게 잘 활용해야 한다. 이 축복이 비극이 되지 않도록 현명히 사용해야 한다. 또한 우리 드리미학교 공동체는 우리의 자원을 잘 사용해야 한다. 특히나 이렇게 풍부한 자원 안에서의 자원은 더욱 더 현명히 사용해야 한다. 나태해지고 게을러지지 않도록, 매일이 발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원을 사용해야 한다.

성결에세이

<정결한 그릇이 되어져가는 삶>

나는 가치기초소양 수업을 통해 성결을 공부했다. 나에게 있어 성결이란 무엇인지, 내가 왜 성결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들이었다. 지금 이 글을 쓰며 내가 이해한 성결이란 무엇인지, 나의 삶에 성결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작성할 것이다. 또한 성결 수업을 통하여 내가 했던 생각은 무엇인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성결이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다. 그 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사는 것이다. 나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드리며 나를 내려두는 것이다.

거룩하다는 것은 죄와 분리되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분리되는 것이다. 진리가 사라지고 선과 악의 개념이 흔들리는, 인간이 가장 중요시되는 이 시대에서 분리되는 것이다. 죄와 분리되는 것은 즉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며 이 세대의 사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전체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완전한 죄를 짓고 있다. 죄가 무엇인지 알고 거룩하여지려면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세상이 살라고 하는 대로, 세상이 세팅해놓은 대로 흘러가듯 살 수밖에 없다.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끌려가며 살게 된다. 세상이 던져주니까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이 하니까 따라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바보 처럼 살면 안 된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기준 없이 내 감정대로 살아갈 때 뒤에서 웃고 있는 건 이 세상을 조종하고 있는 사단이다.

또한 성결은 대상성과 관계성이 존재한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내 삶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지 생각하는 것이다.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
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레
20:26]

내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나에게 있지 않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있
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거룩은 하나님께 거룩한 것이다. 거룩은 선
택사항이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주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성
결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
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
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롬12:1]

나의 몸은 하나님의 소유이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이자 예
배이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하며 깨끗해야 한다. 또한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몸을 선한 일에 사용하
며 살아가는 것이다. 나의 몸을 믿음의 제사로 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내 몸에 대한 성결이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
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케 하라 [고전7:1]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
두려움 안에서 거룩함을 이루어야 한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평안
과 기쁨을 누리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룩함을 생각하며 두려워하
고 주의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더러운 것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깨끗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생각에 대한 성결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
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
이 되리라 [딤후2:21]

나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귀한 그릇이 되게 하신다. 성결
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
하게 하신다. 우리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

니라 정결한 그릇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행동에 대한 성결이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케하며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20:7]

하나님은 우리의 성결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기 원하신다. 내가 깨끗케되기 위하여 노력하길 원하신다. 자발적으로 우리가 노력할 수 있고 우리가 성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이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다. 나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흔들리는 나의 감정보다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내 삶의 성결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네 가지 성결의 부분은 나의 삶에 있어 중요한 요소들이 된다. 하지만 나의 삶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성결이 필요한 곳은 나의 행동이다. 지금 내가 하는 일들 중 정결한 그릇이 되기 위해 하는 일은 거의 없다. 은 그릇, 금그릇이 되기 위한 일을 하고 있고 그러한 모습을 원하고 있다. 말로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고백하지만 어쩌면 그 게 진심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닐 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듣고 배웠던 형식적인 말일 지도 모른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 원하지만 인간적인 나의 욕심을 내려놓으면서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을 원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행동이 성결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 싶다.

내가 정결한 그릇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사용하신다. 내가 성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한 일에 나를 예비하신다. 나의 삶 자체가 주님께 쓰임받는 삶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나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향기를 내뿜는 삶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네 가지 영역에서 나는 지금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앞서 언급했듯이 나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보다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또한 그 성결한 삶을 나는 살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고 죄송한 행동을 하며 살

아간다. 또한 나의 몸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성전으로 생각하지 못한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깨끗하게 유지하지 못하며 하나님께 믿음의 제사로 드리지 못한다. 나의 몸을 선한 일에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에 사용하기도 한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룩함을 생각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하지 못한다. 또한 정결한 그릇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한다. 나 스스로는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를 드릴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내 안에 함께하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성결해질 수 있도록 나를 돕고 계신다. 그렇기에 지금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지금 당장 성결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지만 나는 지금도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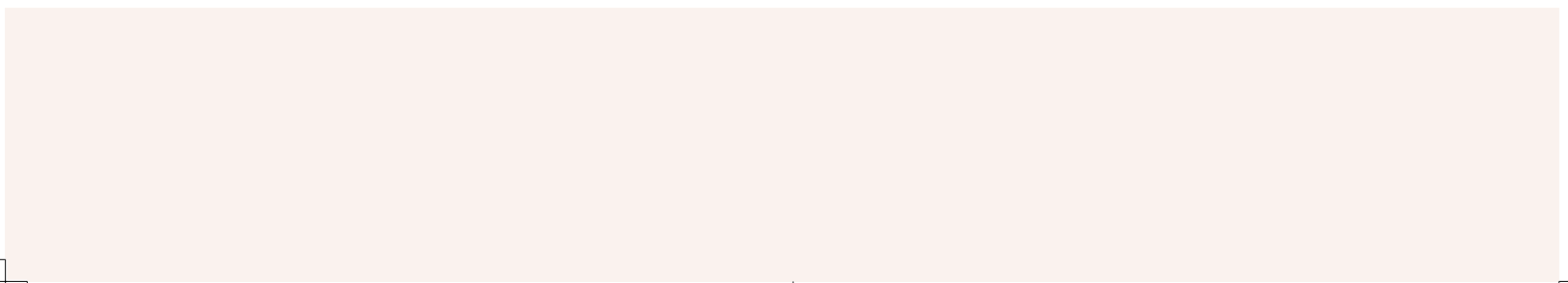
지금까지 내 삶의 주인은 나였다.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나였다. 나의 감정과 나의 의가 항상 나의 생각의 이유이자 행동의 기준이 되었다. 머리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알지만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나의 의와 나의 인격으로 성결을 지키려고 했고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하나님이라는 분의 도움 없이 말이다. 하지만 성결 수업을 통하여 나로서는 절대 성결해질 수 없음을 배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두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다.

나의 삶에는 기준이 있다. 선택형 기준이 있다. 상황에 따라 내 감정이 기준이 되기도 하고 나의 이성이 기준이 되기도 하며 말씀이 기준이 되기도 한다. 최대한 내가 상처 덜 받는 것, 최대한 내가 덜 아픈 것이 나의 기준이 된다. 모든 상황 속에서의 나의 기준은 늘 자기방어적인 기준이었다. 그리고 이것을 기준이라고



하기에는 늘 흔들리고 늘 변한다. 어쩌면 나의 기준은 자기방어가 아니
였을까? 하나님 보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 보다 나의 감정이 더 우선이
되었기에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에 나
는 매일 무너지고 흔들린다.

지금까지 성결에 대한, 성결한 삶에 대한 글을 작성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
야겠다. 늘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삶을 살아가야겠다. 늘
생각하고 고민하는 삶을 살아가야겠다. 성결하지 못한 삶은 세상이 정
한 기준에 맞추어 살아감 당하는 삶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거스르는 세
대 가운데에서 거룩하여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께서 사용하시는 정결한 그릇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한다. 나로서는 거룩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여지게 하신다. 그렇기에 나는 거
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 4:6-7)

”

정직에세이

<정직한 사람의 기도>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정직이라는 가치를 다시 떠올려보려 합니다.

제가 정직이랑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정직이 뭔지, 정직이 필요한지조차 모르는 저의 모습을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또한 저는 정직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저도 압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정직함을 행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셨다는 것 또한 압니다. 정직함에 대한 저의 무지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얼마나 가벼운 사람인지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해주심에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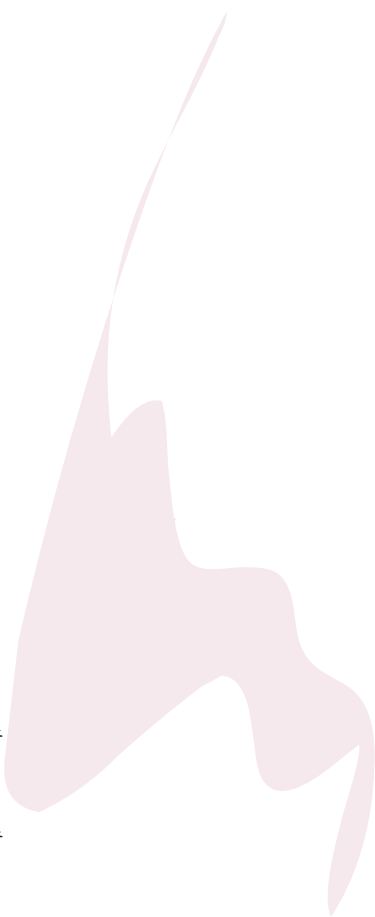
제가 배운 정직함이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이 정당한지 살피고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관점이 바른지 살피고 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건 솔직히 잘 모르겠으나 제가 3주 동안 정직 수업을 들으며 배우고 깨달은 것 하나는 확실히 있습니다. 제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절대 선한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그 부담스러운 정직이 제가 행할 수 있는 정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짓말 안 하고, 거룩하고, 떳떳한 그 행위들이 제가 할 수 있는 정직은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저는 그 정도의 사람입니다.

정말 제가 행해야 하는 정직함은 저의 비어있음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리고 하실 일들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그렇게 정직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제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의 한 가지 소망은 그런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 다 필요 없습

니다. 정직하면 뭐가 좋고 뭐가 이득이고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정직하기 원하는 이유는, 정직이 저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오로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저는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서 정직이 아니라면, 정직의 목적이 주님이 아니라면 제가 정직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어요? 저는 이유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굳이 정직해야 하는 이유를요.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로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모든 정직의 목적은 오직 주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주님 이런 저를 보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저에게 정직함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추구하고 세상에서 원하는 정직이 아닌, 주님 앞에서 정직함을 행하는 코람테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의 작은 소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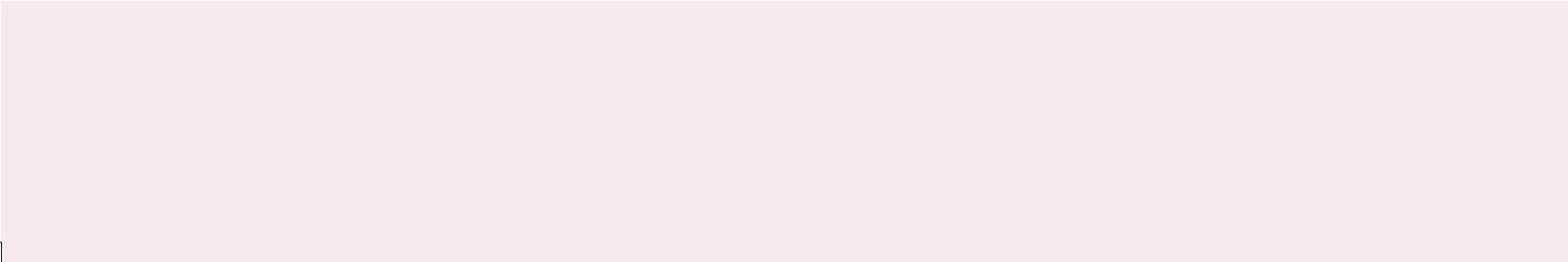
정직은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그제서야 나올 수 있는 고백임을 압니다. 그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저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나도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그래서 정직을 행하는 마음이 더 간절해지기 원합니다. 적당히 정직하길 바라고, 적당히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를 다독이면서 나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먹살을 잡아가면서라도, 뺨을 때려가면서라도 정직함을 행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더러운 것들로 가려진, 타락한 것들로 가려진 나의 예수님을 이젠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예수님께서 지



신 그 십자가를 함께 지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의 소망은, 저의 바램은 이것 뿐입니다. 정직해서 손해봐도 좋고 바보가 되어도 좋고 세상에게 버림받아도 좋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대한 목마름, 내 마음의 가난함,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간절함을 허락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만나주실 날을 기대합니다. 선한 것이 없는 제가 주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은 오직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게 제가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정직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들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어떤 고난 속에도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그 최고의 정직을, 그 최고의 선을 행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어쩔 줄 모르는 저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

이길송
계 14:4-5

G D/F# Em D/F# G D/F# Em C

오늘이 자 - 리에 모인 우 - 리 - 어린양에 - - 수 따라가는 - 무리

5 G/B Am7 D G D/F# Em D/F#

- 되 게 - 하 소 서 - 성령의 충 - 만 한 임 재 안 - 에 -

9 G D/F# Em C G/B Am7 D

여 들 던 우 - 리 눈 밝 아 저 서 - 주 를 - 보 게 - 하 소 서 -

13 G D/F# Dm/F Em C G/B Am7 D

당 신의 겸 - 손 함 당 신의 거 - 록 함 당 신의 정 - 직 함 우리 에 게 보 - 이 사 -

17 G D/F# Dm/F Em C G/B Am7 D

내 안의 교 - 만 함 내 안의 천 - 박 함 내 안의 거 - 짓 됨 모두 벗 어 버 - 리 고 -

21 G D/F# Em C G/B Am7 D G

어 린 양 에 - - 수 따 라 가 는 - 무 리 - 되 게 - 하 소 - 서 -

평화에세이

<주 안에서 누리는 평화>

평화 수업을 통해 평화란 무엇인지, 폭력이란 무엇인지 배웠다. 2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은 평화를 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다. 그랬기에 평화의 표면적인 부분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던 것 같다. 평화 수업을 마치고 나는 내 안의 평화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의 평화가 아닌 타인의 평화는, 세계의 평화는 별로 와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평화가 왜 나에게 와닿지 않을까 고민해보니 내 안에 평화가 없기에 당연히 다른 평화가 와닿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내 안에 평화가 있는 지에 관해 생각했다. 영어는 평화와 평안이 peace로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고 한다. 내 안에 평화와 평안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 안에 평화와 평안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평화롭고 평안할 수 있을까. 사실 답은 성경에 너무 명확하게 나와있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42:5) 대중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려진 성경말씀이다. 내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는 방법은,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기 위한 방법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이다. 나는 평안하고 싶다고 해서 평안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 혼자 힘으로는 절대 평안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내 안에 평안이 없는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했던 것이다.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혼자 평안해질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평안할 수 없었다. 내가 느낄 수 있는 유일한 평안은 주 안에서 느끼는 평안인 것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렘29:11) 주님께서는 나에게 평안을 주고 싶어 하신다. 나에게 평안

을 주시기 원하신다. 그런데 나는 왜 평안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주 안에서 느끼는 평안보다 세상에서 느끼는 쾌락과 즐거움이 더 좋았고 먼저되었다. 주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평안보다 내가 원하는 타락이 더 컸다. 그랬기에 내 마음이 내 눈을 가려 그 평안을 보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내가 그 평안을 원한다면, 그 평안을 간절히 구한다면 당연히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께서 주시지 않을까 싶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14:27) 또한 평안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앞에서 이야기했듯 나 혼자 평안할 수 없다는 것에 확신을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는 것을 믿으라고 하신다. 그 믿음으로 근심과 두려움을 이겨내라고 말씀하신다. 평안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믿는 것이다. 그 평안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것이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일 뿐이다. 그래서 나는 기도해야 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이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롬15:33)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평강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다. 평안이신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다. 그게 내가 평안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평안을 기대하는 것이 내가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이다. 주님만이 평화의 길이다. 또한 내 안이 평안하고 내 안이 평화로워야 타인의 평안과 세계의 평화를 위해 힘쓰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오늘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하루를 살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 46:5)

”

3P기초소양

- 3P 창의활동 이해하기
- 지역연구 프로젝트
- 국토순례 영상편집
- 문제해결 프로젝트

3P 창의활동 이해하기

이 활동은 다음 학기부터 시작할 창의활동의 계획서를 미리 작성해보는 활동이다. 단순히 나의 생각과 의견만 적음으로 끝나지 않고 많은 선생님과 선배들의 피드백을 받았다. 그 과정이 더욱 구체적이고 명확한 결과물을 이끌어냈다. 계획서를 쓰는 것 자체에 그리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는 않지만, 계획서를 수정하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활동이다.

<3P 창의활동 계획서>

활동명: 나의 노래, 하나님의 노래

팀원: 문혜령

개요

:이 활동은 작사와 작곡을 병행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을 만드는 활동이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계속 생각하고 고민한다. 작사를 위하여서 많은 시를 연구하고 공부하며 시적 표현에 대하여, 비유적 표현에 대하여 공부한다. 작곡을 하기 위하여서 피아노 코드에 대해 공부하고 여러 곡을 분석하며 어울리는 코드를 연구한다. 이 활동의 목적은 찬양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관계를 떠올려보는 데에 있다. 또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를 낮추는 데에 의미가 있다. 이 찬양을 공동체와 함께 부르며 함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만든 찬양으로 타인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이 활동을 통하여 음악을 만들 뿐만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의미있는 청중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사람, 찬양이 아니더라도 음악에 관심이 있는 사람, 시적 표현이나 가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 찬양을 사랑하는 사람, 나의 노래를 만들고 싶은 사람, 나의 마음을 글로써 표현하고 싶은 사람, 나의 마음을 음악으로써 표현하고 싶은 사람, 나를 알아가고 싶은 사람,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사람, 각자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 외적으로 아픈 사람(병동에 있는 사람, 재활센터에 있는 사람), 내적으로 아픈 사람(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우울한 사

람),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 노인정, 복지원에 계신 사람, 유아시설에 있는 아이, 학생의 위치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사회인의 위치에서 사회를 꾸려나가는 사람, 매일 살아갈 힘을 가지고 버텨내는 사람

자료&재료

:피아노, 코드 교제(조희순의 반주의 비밀), 시집(윤동주, 나태주)(꽃을 보듯 너를 본다, 모두가 내 탓), 작사 작곡과 관련된 도서(작곡독학 가이드북, 호리이 선생님의 작곡교실), 음악실, 충분한 시간, 나를 알아가는 책 (Q/A책), 맥북(독학, 설교를 공부하는 용도)

내용 및 활동 (주차별 계획 포함)

:play (6주) -나를 알아가고 나의 자아정체성 탐구

(질문지, 나를 알아가는 Q/A책)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고민 (말씀 묵상, 설교)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

나의 삶을 되돌아봄(인생 연대기 작성)

이 찬양에 담고 싶은 마음을 탐색

performance (8주)

(작사)

시를 읽기

시적 표현이 담긴 노래 가사 탐색

글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마음을 담는 방법을 공부 (책, 강의)

시적 표현과 비유적 표현 등 나의 마음을 진솔하게 담을 수 있는 방법을 공부

나의 마음을 글로써 담아내는 연습

도서(ccm반주 비법)이나 강의(유튜브의 다양한 콘텐츠)를 통한 자발적 배움

(작곡)

코드 교제를 통한 기본적인 코드공부

피아노를 이용하여 코드 연결하는 연습

작곡 실습을 통하여 가사에 어울리는 반주를 만들어내는 연습

많은 찬양을 들으며 곡의 흐름 파악, 코드의 반복 파악

도서나 강의를 활용한 자발적 배움

practice (2주) - 배나시를 통하여 우리 학교 많은 사람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여러 플랫폼에 음악 업로드

유튜브, sns등 많은 사람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지역 노인정, 복지관에 가서 정보를 접하기 힘든 어르신 분들께도 음악을 전함

병원, 재활센터 등 삶의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 음악 전함
평가

평가영역	반영비율 (100%)	영역별 만점	평가
자아정체성 찾기	25	30	25-나와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적극적인 마음가짐과 태도 5-나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시&노래 가사 분석	15	30	15-얼마나 깊게 생각하고 나의 이야기로 끌어오는가 15-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태도와 진실성
진솔한 나의 이야기	25	30	15-나의 삶을 글로써 표현하는 것 15-짧은 글로 압축해 내는 능력
음악의 완성도	25	30	15-잘 어우러지는 화음, 박자의 빠르기 15-가사와 어우러지는 곡의 분위기
홍보의 정도	10	10	5-곡이 홍보되고 알려짐의 정도 5-보다 다양한 홍보방법 사용
합계	100	-	.

<소감>

처음으로 창의활동에 대해 배우고 직접 계획하였는데 생각해야 할 부분이 많아서 힘들었다. 아직 3P라는 개념조차 정확히 이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획서를 만들어야 했기에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부분이 많았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활동이기에 당연히 선배들과 선생님의 의견이 필요했다. 3P창의활동 계획서를 만들다 보니 단순히 계획만 하는 게 아니라 점점 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활동이 아닌가 싶었다.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이 무엇인지, 그 활동이 과연 단순히 나의 즐거움을 위한 활동인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활동인지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었다. 그로 인해서 한 가지 배운 점이 있다. 창의활동은 단순히 내가 공부하고 싶거나 배우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배움이 타인에게 씨를 뿌리는 도구가 되기 위해 나를 훈련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다. 무엇이 되든, 어떤 영역이든 그 영역을 개발하고 선하게 사용한다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활동은 없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누군가에게는 절실이 필요하고 원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렇기에 3P창의활동이라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아닐까? 싶다. 이제 당장 다음 학기부터 실천해야 하는 창의활동을 미리 생각할 수 있는 기회이기에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하고 귀했다. 이 계획서를 다음 학기에 그대로 끌고갈지, 새로운 창의활동을 기획할 지 모르겠지만 주제가 무엇인지에 상관 없이 창의활동을 통해서, 그렇게 개발된 나로 인해서 누군가는 꼭 선한 영향력을 받길 소원한다.

지역 연구 프로젝트

이 활동은 천안 지역 안에 있는 여러 기관들을 조사하고 인터뷰하는 활동이다.

내가 더 알아가고 싶은 기관을 선정하여 컨택하고, 인터뷰 질문을 작성하고, 인터뷰를 하고, 인터뷰 내용을 나누는 활동이다.

내가 인터뷰를 진행한 기관은 천안제일요양원이다.

천안제일요양원은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설립된 요양원이다.

<인터뷰 정리>

-사역자님

1. 노인분들을 섬기는 사역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요양원을 스스로 선택했다기보단 대표님을 통하여 동역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법인 대표님께서 어린이집 사역을 하시다가 요양원 사업을 시작하셔서 요양원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뜻이 있다기 보다는 대표님의 뜻을 받들어서 동역자의 역할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표님의 가장 큰 목적은 영혼구원이었습니다.

2. 요양원을 운영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지금은 어르신들이 힘이 없고 경제생활도 중단하셨지만 우리나라의 기초를 닦아주신 분이라고 생각하며 더 잘 해드려야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가실 때까지 건강을 최대한 유지시켜드리고 믿음이 없으신 분들께 믿음을 갖게 해드리는 것이 가장 큰 가치입니다.

3. 사역자님께 요양이란 무엇인가요?

인생의 마지막 과정의 마지막 페이지라고 생각합니다. 노후를 더 건강하게 도움드리고, 혼자서는 안 되는 제한적인 것을 챙겨드리며 손과 발이 되어드리는 것입니다. 노후를 편하고 함께라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 요양 사역을 통하여 배우고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제가 어르신을 상담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께 상담 받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시대를 살아보셨는데 인생을 살아온 경험을 무시해선 안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첫 계명으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는데 나의 부모는 아니지만, 내가 그분들의 자녀는 아니지만 섬기는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이 역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타 직종에 비해 근로환경이 어렵고 급여가 적을 수 있지만 위에서 보시는 분이 계시기에 저에게 노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기도의 응답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개선이 되고 호전이 되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5. 요양 사역을 통하여 앞으로 더 배우거나 얻어가고 싶은 것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무엇인가요?

한 가지 바램이 있다면 이 곳에 들어오신 어르신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6. 요양 사역을 하며 가장 감사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몸이 매우 안 좋으시고 인간적으로 봤을때는 며칠 안에 돌아가실 것 같은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시 회생하셨을때 감사한 마음이 큼니다. 또한 요양보호사들이 섬기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한 손잡이라도 더 떠드릴까 하는 마음과 생각이 드는 것에 감사합니다.

7. 요양 사역을 하며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그 힘든 순간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오인 사건으로 인하여 3년 동안 요양원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잘못된 일이라면 벌을 받고 끝나면 되지만 학대가 아닌 상황을 학대라고 오인했기에 그러한 과정을 지나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힘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어르신을 제재했는데 어르신께서 폭력적으로 나와서 그것을 막는 과정을 학대로 오인하였습니다.

오인 사건이 끝날 무렵 코로나가 겹쳐왔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어르신이나 이런 상황들이 인위적으로, 나의 생각으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신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8. 요양에도 분야가 굉장히 광범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나 힘을 쏟는 분야가 있나요?

요양보호사라는 직종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의 직접적인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어르신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함께 움직이는 일을 합니다. 요양보호사 뿐만 아니라 모든 직종들이 같은 마음으로 고객이 아니라 나의 부모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할 때 모든 문제는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9. 요양원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어르신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어떠한 계기로 만나게 되었나요?

기억에 남는 어르신이 한 분 계십니다. 그 분은 혼자 사는 분이셨습니다. 가족은 있지만 남남으로 사시는 분이셨는데, 주민센터 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서 저희 요양원으로 오셨습니다. 제가 모시러 가게 되었을 때 차에서 어르신께 요양원에 대한 종교적 색깔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때 어르신께서는 불교라고 얘기하시면서 차 안에서 염불을 외우셨습니다. 눈이 잘 안보이는 분이신데 자연스레 요양원에서 드리는 공동예배, 구역예배, 주일예배를 통해 찬양과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며 눈을 수술하는 날이 왔는데 그 날 가장 보고 싶은 분이 목사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 수술 이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책을 보시고 예배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등 참 많이 변화셨습니다.

10. 노인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떠한 기도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나요?

매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어르신이 식사를 못하시거나 폭력적인 성향을 보일 때 그런 것들을 위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몸을 회복시켜주시고 지혜주셔서 잘 케어할 수 있길 위하여 기도합니다.

11. 앞으로의 비전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집이 없는 분들이나 가족이 없는 분들을 나이를 불문하고 모실 수 있

는 생활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많은 직종이 어린이에서 노인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시대에 맞춰서 필요한 복지를 생각하고 움직일 것입니다.

12. 저를 포함한 다음세대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나요?

만약 있다면 무엇인가요?

양로원에 봉사오는 학생에게 왜 봉사를 하냐고 이유를 물어보면 대학을 위한, 취업을 위한 봉사가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영적인 목적이 없습니다. 영적인 목적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분들

1. 요양원에서 언제 가장 행복하신가요?

매일 목욕을 시켜주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러한 사소한 것들이 행복입니다. 큰 실수를 해도 웃으며 치워주는 것이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재미있습니다. 일상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2. 요양원에서 언제 가장 슬프거나 속상하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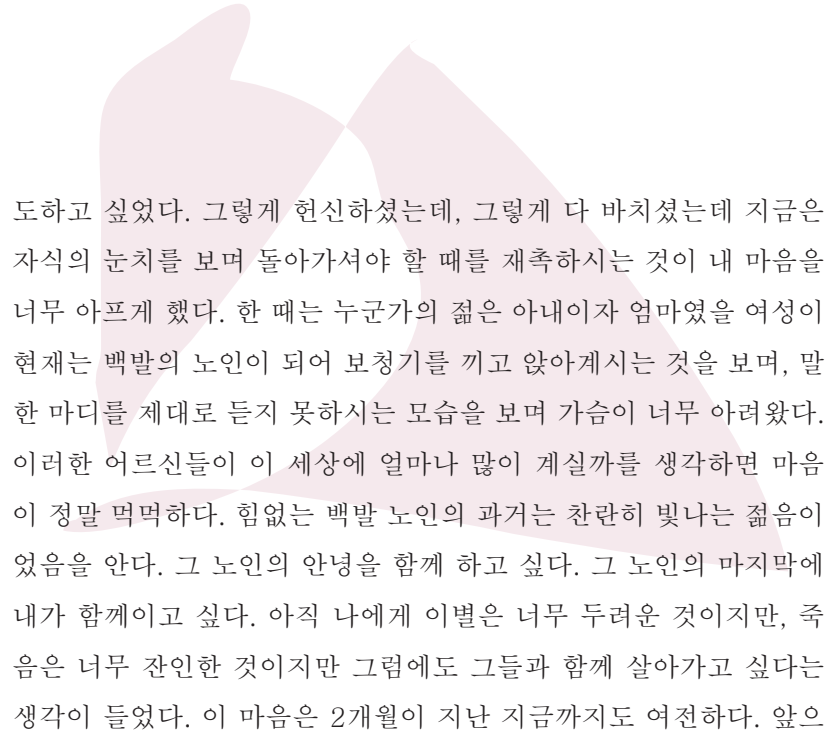
자식들을 고생시킬까봐 빨리 가야할 텐데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전 일을 잘 까먹고 잘 잊어버려서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언제 다시 마비가 찾아올 지 가장 염려가 됩니다.

3. 요양원에서 가장 즐거운 활동은 무엇이신가요?

화투치는 것과 노래 부르는 것, 그림 그리는 것이 즐겁습니다. 모든 게 다 재미있습니다. 배운 건 없지만 즐겁고 행복합니다.

<소감>

요양원 인터뷰를 진행하며 참 많은 것들이 나의 마음을 울렸다. 가장 많이 느낀 것은 요양원 안에 마음이 외로우신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이다. 가장 크게 그것을 느낀 사건이 있다. 나는 가장 행복할 때가 어느 때이신지 여쭙었는데 할머니께서는 가장 서글프고 서러운 삶의 이야기를 하셨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홀로 자식들을 지켜낸 한 여성의 삶의 이야기를 말이다. 이야기를 끝마치시며 “제가 이렇게 서러운 삶을 살았어요, 저를 알아주세요, 너무 주제 넘는 말을 했나요?”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다. 당장이라도 손 잡고 함께 기



도하고 싶었다. 그렇게 헌신하셨는데, 그렇게 다 바치셨는데 지금은 자식의 눈치를 보며 돌아가셔야 할 때를 재촉하시는 것이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다. 한 때는 누군가의 젊은 아내이자 엄마였을 여성이 현재는 백발의 노인이 되어 보청기를 끼고 앉아계시는 것을 보며, 말한 마디를 제대로 듣지 못하시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너무 아려왔다. 이러한 어르신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계실까를 생각하면 마음이 정말 먹먹하다. 힘없는 백발 노인의 과거는 찬란히 빛나는 젊음이었음을 안다. 그 노인의 안녕을 함께 하고 싶다. 그 노인의 마지막에 내가 함께이고 싶다. 아직 나에게 이별은 너무 두려운 것이지만, 죽음은 너무 잔인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마음은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하다. 앞으로도 그 마음이 변치 않길 소망한다. 요양원 담임목사님과 짧은 시간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때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계속 기억에 남는다. “자식들도 더럽고 냄새난다고 외면하는 그 어르신들의 영을 죽기 직전까지 예수님 안에서 모시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라는 말씀이 말이다. 가장 사랑했던 누군가에게로부터 버려진 그 불쌍한 영혼을 예수님 안에서 모시는 것. 지금은 힘도 능력도 점점 사라져가는 그분들의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게 목사님의 사명이다. 이 말씀이 나에게는 너무 큰 감동이자 은혜로 다가왔다. 그 영혼을 섬기는 마음이,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눈물흘리는 마음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까. 주님께서 보시며 얼마나 행복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주님께서 기뻐하실, 주님께서 행복해하실, 주님께 영광 돌려질 주님 뜻에 합한 일을 하기 원한다. 그 일을 담대하게 끝까지 해나가길 원한다. 이 인터뷰가 나에게 그 도전의 기회가 되었음을 나는 안다. 젊은 여성이 백발 노인이 되기까지 그 과정의 무게를 나는 모르지만, 사랑하고 헌신했던 사람에게 버려진 그 과정의 아픔을 나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아실 줄 믿는다. 그들 편에서 함께 놀고 마시실 예수님의 마음을 더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 내 삶의 모습이 그 모습으로 가득하길 소원한다. 또한 한 노인분께서 인터뷰가 끝나고 마지막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니

까 너무 좋아요.” 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맞
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청년의 때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다. 요양원 안에서 한정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 보다 젊은
나이에 예수님을 만나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많은 곳을 돌아다니며,
많은 사람을 만나며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축복을 허락하심에 진
심으로 감사하다. 복음의 크기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 복음의 가치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언제나 동일하다. 내가 감사한
부분은 단지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청년의 때
에 더 많이 열리기 때문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더 많은 사람에게 예
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부르심에 감사하다. 나도 누군가에게 예
수 믿으니까 너무 좋다고, 예수 믿으라고 확신에 가득찬 눈빛으로 우
리 예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
는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 인터뷰 준비 과정부터 소감을 작성하는 지
금까지 단 한 순간도 은혜 아니었던 순간이 없다. 모든 과정에서 주님
께서는 나에게 메시지를 주셨고 나는 그 메시지에 반응했다. 그게 내
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은, 힘이 없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 고아
와 같은 사람, 과부와 같은 사람, 그들과 함께 놀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한다. 그 삶을 기뻐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매일을 살아가기 원한다.

국토순례 영상편집

이 활동은 동해 국토순례를 하며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하나의 영상으로 제작하는 활동이다. 기본적인 영상을 편집하는 방법을 배우고, 직접 영상을 편집하는 시간을 가졌다. 컷 편집하기, 자막 넣기, 음악 깔기, 재생 속도, 화면 효과, 화면전환 등 영상편집의 요소들을 공부하고 활용한다. 영상편집 뿐만 아니라 영상에 넣을 소스들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배우고 영상의 분위기에 맞게 음악을 넣는 감각도 배웠다. 영상에 들어갈 사진을 찍는 방법, 영상의 들어갈 동영상을 부드럽게 촬영하는 방법 등 영상에 도움되는 많은 지식들을 얻어가는 수업이다. 영상의 주제는 동해 v-log이다. 동해를 걸으며 느꼈던 아름다운 자연, 아름다운 흔적, 아름다운 사람을 담은 영상이다. 영상 제작을 모두가 마친 이후 함께 영상을 감상하며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진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찍은 영상과 사진들이지만 사람에 따라 180도 달라지는 영상을 보며 서로의 관점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진다. 영상편집의 과정 동안 각자가 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도움을 받기도, 선배들의 도움을 받기도, 선생님의 도움을 받기도 하며 완성해낸 결과물이다.

<문혜령의 국토순례 여행기>



<소감>

영상편집이 처음이고 컴퓨터 작업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에 편집의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 영상편집에 대한 아무런 기초지식이 없었기에 초반에는 이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더 찾아보아야 하고 더 공부해야 하지만 제출기한이 짧았기에 따로 더 공부할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영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수하고 틀리고 삭제하고를 반복하며 조금씩 나도모르게 배워나갔다. 몇 번을 삭제하고 몇 번을 의도치 않게 날렸는 지 모른다. 지금은 이렇게 덩뎅하게 글로 쓸 수 있지만 당시에는 엄청난 슬픔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있었기에 조심하는 방법을, 저장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었다. 또한 영상의 흐름에 맞는 소스를 찾아 정리해야 했고 때에 맞는 효과와 자막을 삽입해야 했다. 국토순례를 할 때에는 영상편집이라는 과제를 잊고 열심히 걷기만 해서 영상에 어울리는 소스를 찾기가 힘들었다. 사진의 분위기가 각자 달라서 영상의 잔잔한 분위기에 맞는 사진을 고르는 과정이 있었다. 그 사진을 열심히 골라 나름 열심히 했지만 타이밍이 안 맞고, 크기가 안 맞고, 흐름이 안 맞아 삭제와 수정의 연속이었다.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많은 정성을 부었다. 2분 채 되지 않는 짧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 이런 고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몸으로 느꼈다. 몸이 너무 지쳤지만 결과물이 완성되니 마음이 참 뿌듯했다. 내 손으로 어떻게 만들었을까 싶을 만큼 잘 만든 것 같아 참 감사하다. 영상을 제작하며 국토순례를 돌아볼 수 있었다. 사진과 동영상을 다시 보며 그때의 공기, 그 때의 날씨, 그 때의 냄새 등을 다시 떠올릴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소중한 특별한 추억이자 기억을 전 세계에 하나 뿐인 나만의 영상으로 제작하여 보관할 수 있음에 감사했다. 두렵기만 했던 영상편집을 이 짧은 영상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소중한 활동이었다.

문제해결 프로젝트

문제해결 프로젝트는 학교 내부에서 우리가 문제라고 느끼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공유하며 팀을 꾸려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프로젝트이다.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문서로 정리하고 구체적인 해결방안까지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논의하며 열심을 다한 프로젝트이다.

<문제해결 프로젝트 계획서>

팀원: 문혜령, 이지혜, 정하민

1. 주제

급식실 앞 가방 보관함 설치

2. 문제 개요

급식실 앞과 급식실 식탁에 맥북과 가방이 내, 외부에 무분별하게 놓여있다.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 a. 급식실의 분위기가 어수선했다
- b. 음식을 섭취하는 장소가 비위생적인 장소로 인식됨
- c. 먼지가 급식실 내부까지 들어옴
- d. 맥북이 파손될 위험을 초래함
- e. 시설관리와 위생관리가 어려움

3. 의미 있는 청중

가방을 어디에 둘 지 모르는 학생, 가방이 굴러다님으로 맥북이 파손된 학생, 먼지가 있는 음식을 먹어야만 하는 학생과 선생님 또는 외부 손님, 어수선했던 급식실을 보게 되는 모든 사람, 학교 방문객, 그리미를 구성하는 모든 공동체 일원

4.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지식

- a. 급식실 의자는 모퉁이가 둥글어서 가방을 걸어두면 흘러내림
= 즉 의자에 가방을 걸어둘 수 없음
- b. 급식실 바닥에 가방을 두게 되면 오가는 길에 걸려 넘어질 수 있음
- c. 학생들 가방의 평균 크기와 지닌 물건

d. 트리미 공동체가 물품 보관함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정도

5. 문제 해결 방법 브레인스토밍

a. 급식실 앞 가방보관함 설치

b. 급식실 앞 락커 설치

c. 급식실 내부 책상을 외부로 옮김

d. 외부 책상 수량을 늘려 최소한 바닥에 굴러다닐 일은 없도록 함

e. 맥북 전용 수납 설치

6. 문제 해결 방법 정리

급식실 외부에 가방보관함을 설치

-칸이 없는 가방보관함을 설치한다면 분실물 보관함이나 잡동사
니 함이 될 수도 있음

-그러므로 칸막이로 막힌 개별 가방보관함을 설치

7. 액션 플랜

a. 트리미 공동체를 대상으로 필요성에 대한 설문 진행

b. 급식실 외부에 있는 공간의 길이를 측정

c. 가장 최적화된 가방 보관함을 주문

d. 가방보관함 규칙 제정, 관례 계획

e. 가방보관함 설치 이후 학생들에게 공지

f. 공지와 동시에 책임감을 강조, 두고 가는 물건의 대처는 폐기처
분임을 예고

g. 가방보관함 관리자 선정

h. 관리자는 매일 저녁식사 이후 청결의 상태를 점검

: 밤까지 가져가기 않은 물건은 폐기처분

8. 역할분담

a. 가방보관함 관리자

: 매일 저녁식사 이후 가방보관함을 점검, 늘어진 물건 폐기처분, 어
셈블리에 매 주 공지

b. 가방보관함 주문자

:급식실 앞 공간의 넓이를 측정, 그에 맞는 가방보관함 주문

c. 정보원

:설문을 통하여 학생 가방의 크기나 무게 통계, 가방보관함 설치 이후 만족도 또는 청결도를 주기적으로 설문, 가방보관함 유지에 힘 씀

d. 책임있는 학생

:가장 핵심이 되는 역할, 학생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가방보관함의 질을 결정함

<소감>

학교의 문제를 인식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았다. 이미 체인지메이커라는 수업을 하고 있었기에 이 프로젝트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체인지메이커 수업 초반에 매일 있던 과제가 문제를 인식하는 과제였기에 학교에 있는 웬만한 문제들은 다 알고 있을 만큼 나에게는 선택지가 많았다. 그래서 다른 활동 보다는 비교적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자만한 생각을 했다. 하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나 새롭게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큰 도전이자 내가 넘어야 할 산이라는 것을 느낀다. 생각이 다른 서로가 모여 하나의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것 부터가 내가 넘어야 할 산이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우선순위가 달랐기에 한 가지의 주제를 선정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프로젝트를 선정했다고 해도 그 프로젝트를 바라보는 시선조차 다르기에 순탄치만은 않았던 그 시작을 다시 생각해 본다. 안 맞춰질 것 같았던 상황이 점점 맞춰지고 우리의 마음이 모일 그 때를 느꼈다. 하나의 프로젝트를 보고 함께 나아간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다시 생각할 수 있었다. 또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친구들과 대화할 뿐 아니라 선생님 과도 대화하며 의견을 조율하는 것을 배웠다. 나의 생각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과정에서 완전히 다른 관점을 생각할 때도 있었다. 생각도 하지 못한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 서로를 이해시키기까지의 과정이 힘들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생각이 너무나도 달랐지만 결국은 그 생각이 하나로 모여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해가고 있음을 본다. 지금처럼 계속 부단히 노력을 기울인다면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뿐 아니라 더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보다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막9:41)

”

성결서약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대를 본 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고
자, 이 성결서약식에 참여 합니다.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레 11:45)’ 는 하나님의 말
씀을 마음에 새겨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이루어가는 존재로
서 성적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자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되었고, 구원받은 존재로서 나의 영혼과
몸, 성에 대해 성경적인 가치와 태도를 가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둘,

나와 더불어 타인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귀한 존재임을 믿고 불건
전한 성적 농담을 하는 등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말과 행동
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셋,

사람의 영혼과 육체는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이성 간의 육체적 접촉을
절제하여 결혼하기 전까지 서로의 몸과 마음을 지켜줄 수 있도록 돕겠
습니다.

넷,

성은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사람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을 받아들이고
한 순간의 감정과 호기심에 의해 성적 관계를 맺지 않을 것입니다.

다섯,

나와 타인은 누군가의 배우자이자 부모가 될 수 있는 존재임을 알고 성
적인 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만들지 않을 것이며, 그러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성이 왜곡되어 표현된 포르노 영상이나 도서, 웹툰 등의 음란한 매체를
보지 않을 것이며 만들거나, 유포, 공유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곱,

성매매나, 유사 성매매, 성폭력 등의 성적 범죄에 조금이라도 가담하지
않으며 성을 파는 일과 사는 일도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덟,

결혼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배우자와만 성관계를 맺을 것이
며 배우자를 깊이 사랑하여 상호 간의 대화와 합의로 이루어진 성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홉,

성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자신의 몸과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절제하
고 균형있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열,

성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결혼이라고 하는 안전하고도 성경
적인 제도를 신성히 여기고 책임 있는 태도를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다짐하는 바이며, 하나님과 부모님, 선생님들과 동료
들 앞에서 엄숙하게 서약합니다.

2022년 5월 4일 드리미학교 4기생 문혜령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33〉